

주말·휴일 총력 유세전

민주지도부 순천·화순 출동 '한표 호소'

순천 "정권 심판위해 단일후보 뽑아 달라"

화순 민주 "명예회복" vs 무소속 "3년단임"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화순군수 재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과 휴일을 맞아 각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야 4당은 주말과 휴일 순천을 아권연대 단일후보의 총력 지원 유세를 벌였고, 이에 맞선 무소속 후보들도 자신들이 진정한 민주당 뿌리임을 내세우고 시장과 상가 등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순천=아권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김성동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과 휴일 야 4당·시민사회단체 공동 지지유세를 벌이며 세 물이에 나섰다.

김 후보 측은 23일 오후 순천 의료원 토터리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이병안 국민참여당 상임고문,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진보통합시민회의 이화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지지유세를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지지유세를 통해 "순천의 민주당원들을 만나 '지금'은 순해를 보더라도 내년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야권 단일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후보를 통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김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22일에는 민주당 전정배 최고위원과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함께 공동 유세를 나서 김 후보를 지원했다.

반면,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인사들의 격려 전화와 잇단 방문 등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속 마음은 선거 승리 후 복당을 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성향의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순천행에 맞서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이 순천을 찾아 무소속 조순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 눈길을 끌었다.

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과 김상남 전 노동부 차관, 장석일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 등 3명은 22일 오후 순천 동부시장에서 시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한 지원유세에 참석해 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조 후보는 거리 유세보다는 개인 도보 유세에 치중하며 밀바다 표심을 훑는데 집중했다.

무소속 구회승 후보는 부활절을 맞아 교회 예배와 부활절 대예배에 참석하는 한편, 각 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 등에 얼굴을 내밀며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무소속 허상만·박상철·허신행·김경재 후보 등도 주말과 휴일 순천 시내 아파트와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총력 집중 유세를 펼치며 순천 시민의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화순=3번이나 연거푸 무소속 후보에게 군수 자리를 내준 민주당은 주말과 휴일 화순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가 선출된 만큼 이번에는 결코 무소속 후보에게 군수 자리를 내주지



4·27 재·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24일 화순군 화순읍 광덕지구에서 열린 길거리 유세에 참석한 유권자들이 연설원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kwangju.co.kr

않겠다는 각오로 지원유세에 열을 올리며 막판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홍 후보의 무결점을 치켜세우고 있다. 무겁게 있는 당내 인사들이 속속 화순에 도착해 홍 후보의 소통과 화합, 지역민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주말인 23일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이낙연 사무총장, 조배숙 최고위원, 김영록 전남도당위원장, 최인기 국회의원 등 중앙당 고위 당직자들이 총출동해 홍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홍 후보 같은 깨끗한 후보를 뽑아 실추된 화순의 명예를 되찾자"며 "복지 전문가 홍 후보가 화순을 행복한 고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임호경 후보는 주말과 휴일 자신의 지지기반인 화순읍을 중심으로 막판 선거전에 열을 올렸다. 임 후

보 측은 군수 재직시절부터 다져진 탄탄한 조직을 중심으로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부부군수'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3년 단임제' 카드를 내걸고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신당도 지도부와 의원들이 화순을 찾아 자당 후보들의 지원유세를 벌였다. 민노당은

23일 강기갑 의원과 위두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화순 장터와 광덕지구에서 집중유세를 벌이며 민노당 백남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신당은 노회찬 전 대표와 조승수 대표가 주말과 휴일 화순을 찾아 최만원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화순 불법 선거운동 사례 점심 얻어먹고 양말 받아 30배 과태료 연설 금지 공공기관서 유세하다 경고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4·27 재·보궐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며 각종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불법·탈법이 유행하는 혼탁선거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화순군수 재선거, 전남도의원 보궐선거, 목포시의원 재선거 등 4곳의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적발 건수는 총 20건. 선관위는 이 가운데 4건은 고발하고, 1건은 검찰에 이첩하는 한편 1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불법 행태는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허위사실 유포, 문자메시지·전화이용 선거운동 등 다른 선거 못지않게 전방위적이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불법 선거운동은 대부분 음식물 제공이다. 고발 4건 중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3건이고, 허위 부재자 신고가 1건이다. 음식물 제공은 순천에서만 2건이 이뤄졌다. 음식물과 금품 제공은 대부분 후보자와 가까운 지인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

석한 유권자들에게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은 개인별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부과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예배에 참석해 목사로부터 점심 식사와 양말세트를 제공받은 23명에게 제공받은 음식과 물품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52만1250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조치 내역 중 15건으로 가장 많은 '경고'의 경우 대부분 홍보물 배부 위반이었다. 순천이 4건, 목포 3건, 화순 1건이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순천과 화순 각각 2건이었다.

화순에서는 거리유세 위반도 1건이 있었다. 공공기관 등 연설금지 장소에서 유세를 하다 경고조치를 받은 것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단속반을 보강, 특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빅3' 지역도 폭로... 비방 '최악 선거판'

"노인 투표 말라" 괴전화 등 네거티브 양상

4·27 재보선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여야는 상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3일 민주당 선거사무소를 사칭한 괴전화 분당에 물고 있다는 제보 접수됐다"며 "괴전화의 내용은 '노인은 투표하지 말라'는 황당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차영 대변인은 23일 "분당에서 손 후보 캠프를 사칭, 손 후보를 비방하는 비열한 5공(共

식 공작 전화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민은 이런 선거운동을 하는 타락한 후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여당 후보 측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안 대변인은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운동권식 흑색선전을 중단하라"며 "모든 사안을 최소분당에 선거에 악용하려는 행태는 이제는 우리 선거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나아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낮 분당구의 한 식당에서 손학규 후보의 어깨띠를 맨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일행이 유권자 13명과 얘기를 나눴다"면서 "대화를 나눈 뒤 (김 의원 일행이) 이들의 식

비를 대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은 "시의원 등과 잠시 (식당에) 들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듣고 나온 것이 전부"라며 "음식값을 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남 김해읍에선 특임장관실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선거대책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해에서 입수된 특임장관실 수첩에는 선거개입 정황과 함께 장관실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의 실명이 적혀 있다"며 선거개입을 주장했다. 특임장관실은 24일 "특임장관실은 일일 선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미치겠다, 장사 또 망쳤다

손학규 기자회견

"모든 것 바치겠다"

경기도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이번 선거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분당 전자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가슴 한쪽에 제 운명을 맡기겠다"며 이같이 배수진을 쳤다.

손 대표는 또 "분당을 뿐 아니라 강원도·김해·순천 등 재보선 결과 전체를 통해 제가 갈 길을 가겠다"며 "승리는 모두의 것이고 책임은 제 한 몸에게 가자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해야 할 일도 없음을 잘 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다도해의 아름다운 휴식을 담은 호텔

예향 남도의 문화가 가득한 목포에서 최상의 호텔 서비스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서남권 유일의 특1급 호텔, 호텔현대(목포)

호텔현대는 전남 서남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유일의 특1급 호텔로서 객실 발코니에서 다도해의 일출과 일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500여명의 고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홀을 비롯해 기업 및 공무원 연수, 학술회의, 연회 등이 가능한 중소연회장을 갖추고 있어 각종 이벤트를 원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61-463-2233 / www.hyundaihotel.com

208실의 고급객실 / 컨벤션&웨딩홀 / 실내수영장 / 실내테니스장 / 실내수영장 / 남자사우나 / 헬스클럽 / 스크린골프 / 당구장 / 커피숍 / 양식당 / 로비라운지 등